

올 가을 불교학 담론의 장 열린다

2014년 하반기 학술세미나 무엇이 있나?

무더운 한여름이 지나 가을을 앞두고 다 양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교계 학술단체 들을 비롯해 일부 사찰에서는 이번 하반기 에도 다양한 학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불교학에 깊은 이해가 없는 불자라도 주제 가 다양한 만큼 자신의 구미에 맞는 세미나 에 참가해보는 것도 불교학을 이해하는데 좋을 듯 하다. 올 하반기 가장 관심을 끄는 세미나는 불교의식과 신행에 대한 방법론 을 주제로 한 세미나들이다.

한국정토학회는 10월 11일 인천 흥륜사 정토원에서 '조상신앙'을 주제로 각종 불 교의식에 대해 다양한 조명을 한다.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을 비롯해, 신규택 연세대 교 수, 구미래 건국대 교수 등이 나서 생전예수 재, 관음시식, 49재, 납골봉안, 불교의 효사 상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전통불복장점안 의식 연구보존회도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에서 불복장 점안의식을 주제로 학술세미 나를 연다.

이 세미나도 한국불교 전통 복장의식을 주제로 한 첫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많은 불 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9월 26일 서울 진관사에서 개최하는 '진관사 수륙재' 학술세미나도 수륙재의 중요무형

문화재 지정 이후 수륙재의 활용에 대해 논 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동아시아불교 의례연구소도 12월 13일 템플스테이센터 문수실에서 '불교 작법'을 주제로 학술세 미나를 연다.

만해 70주기를 기념해 **만해사상실천선 양회**가 8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여는 학술세미나는 불교 와 자본주의, 그리고 불교공동체 운동에 대 해 고찰할 예정이다.

불교의례·의식 관련 세미나 많아 불광 40주년, 동광 110주기 눈길

이도훈 한양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최갑수 서울대 교수 등이 나서 자본 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불교, 불교공동체 와 소비컴페인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현시대 에 맞는 불교운동을 접근할 계획이어서 이 에 관심 있는 불자들이 참가하면 유익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들 중에는 많은 준비 끝에 열 리는 세미나가 있다. **불광연구회**이 불광 40주년을 기념해 여는 학술연찬회가 그것 이다. 9월 27일 불광사에서 열리는 불광

2014년 하반기 학술일정

일시	주제	주관단체
8월 29일	불교와 자본주의	만해사상실천선양회
9월 20일	'송광사 고승 나옹과 제자 무학'	보조사상연구원
9월 20일	월례 논문발표회	불교학연구회
9월 26일	진관사 수륙재 보존과 활용	한국미술사연구소·진관사
9월 27일	불광 40주년 기념 세미나	불광연구회
10월 11일	'조상신앙'	한국정토학회
10월 18일	제23차 국내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
10월 31일	선불교 수행법	한국선학회
10월 31일	전국 폐사지 조사 결과 발표회	불교문화재연구소
10월 31일	'백운성 스님 전법 재발굴'	대각사상연구원
11월 초	전통불복장점안의식	전통불복장점안의식보존회·불교문화재연구소
11월 중	'동아시아 전통 속 원효'	불교학연구회
12월 둘째주	'불교 작법의 세계'	동아시아불교의례연구소
12월 26일	인도 석굴사원 조사 발표회	한국미술사연구소

40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광덕 스님의 불 광사상과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 소천 스님 의 금강경 운동, 박종홍의 민족주의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밖에 큰 스님들을 재조명하는 학술세 미나도 열린다. 먼저 **불교학연구회**가 11월 중으로 여는 '인도철학에서 바라보는 원효' 학술세미나는 한국불교와 동아시아에 국한됐던 기존 원효 스님에 대한 연구에서 아비달마 등 인도불교와 인도철학계에서 의 원효 스님의 위상과 영향을 찾아보는 자 리다. 또 **대각사상연구원**이 10월 31일 남 양주 봉선사에서 여는 '동양 스님 탄신 110주년 기념 세미나'는 용성 스님의 전법

을 재조명해 '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과 함 께 동암, 동광, 월주 스님 등에 대해서도 함 께 조명한다.

보조사상연구원이 9월 20일 '송광사 고 승 나옹과 제자 무학 재조명'을 주제로 여 는 자리가 나옹 스님과 그 제자들을 다시 살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와 **한국불 교상담학회**는 8월 11~28일 학술발표회와 함께 데이빗 브레이저 박사를 초청해 명상 심리 워크숍을 열고 **한국선학회**도 10월 31 일 선불교 자유 주제로 발표회를 여는 등 수 행법과 관련된 학술대회도 마련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원전은 비판적 탐구 거쳐야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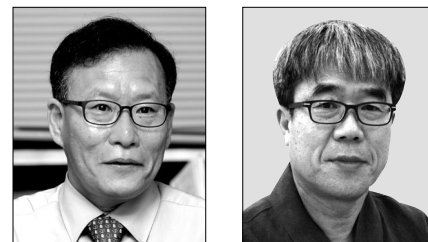
조성택·권오민 교수 불교학연구회에서 주장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7월 21~22일 성주 심원사에서 '불교, 그리고 불교학'을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현재 한국불교학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 리가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성택 고려대 철학 과 교수와 권오민 경성대 철학과 교수가 한국불교학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조성택 교수는 "근대불교학이 소개된 이후 한국의 불교학은 100년간 교리와 수 행체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담론을 만 들어 왔으며, 또한 환경 및 생태, 여성주 의, 사회참여, 명상, 그리고 인식론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분과적 주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불교적 관점을 제시해왔다"며 "하 지만 대부분의 불교적 발언들은 현실적 실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인문 학적 관점과 소통되지 못한 채 불교계 내 의 독백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불교교리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현 대적 맥락에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이 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러한 문제는 불교의 교리와 담론들에 대한 재해석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불교의 일상적 실천



조성택 교수



권오민 교수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교리 이해 를 넘어서 현대적 맥락에서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오민 교수는 "불교학은 과거의 불교 를 통해 현재를 비판하고 미래를 전망하 며 구성해야 한다. 불교원전에 대한 비판 적 탐구없이 주어진 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교학이 아니라 교시에 불과하다"고 지적 했다.

권 교수는 최근 불교학계에 불교 있는 응용불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응용불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 만 이 것이 불교학 영역이라거나 그 현대 화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불교생태 학이나 불교사회학 등에 필요한 이론과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불교학자의 소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돈황석굴’ 특집 ‘강좌미술사’ 42호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최근 <강좌미술사> 제42호를 펴냈다. <강좌미 술사> 제42호에는 이기강군 경주대 교수 의 '근대기 창덕궁 건축의 변천에 대한 연 구' △손신영 불교미술학교 교장의 '19세 기 왕실후원 사찰의 조형성' △원보현 종 박물관 학예사의 '한국 근대기 범종의 양 식적 특징과 제작기법 연구' △김성훈 중 앙대 교수의 '돈황 막고굴 제285굴의 마 혜수라천 연구'가 실려 있다.

돈황석굴 특집논문으로는 △문명대 소

장의 '돈황 410굴 수대 미륵삼존불의상 (倚像)과 삼화량미륵삼존불의상의 연구' △유근자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 책임연 구원의 '돈황막고굴 158굴 열반도상의 연구' △김현정 동국대 겸임교수의 '돈황 332굴 석가설법도 고찰' △주수환 고려 대 교수의 '막고굴 335호굴 유마경변의 도상분석을 통한 사천왕 도상 연구' △유 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의 '돈황석 굴 불문품점상의 전개와 구마라집역 묘법 연화경의 영향'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만해 스님 심우장서 참선 주력하며 <유마경> 번역”

만해학회, 7월 25일 만해 70주기 기념 세미나

"만해의 심우장은 비승비속의 유마거사 로서 실천행을 펼친 터전이었다. 심우장 당 시 스님이 펴낸 다양한 문학작품과 사상에 대해 재조명해야 한다."

만해학회와 7월 25일 서울 불교평론 세 미나실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 안 연구가 많지 않았던 1930년대 이후 만 해 스님의 심우장 시절과 관련된 논문이 대 거 발표됐다. 이날 행사는 총 2부로 1부 '만해와 심우장' 2부 '만해와 근대지성의 교류'로 진행됐다.

1부 첫 발제자로 나선 김광식 동국대 특 임교수는 "만해와 심우장의 정신사" 발표 를 통해 "만해 스님은 비승비속, 승속의 경 계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펴냈으며 심우장 은 이런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가장 확연히 드러냈던 곳"이라며 "심우장 시절 소설과 산시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비롯해 일 제에 대한 독자적인 저항운동, 대중지도를 이끈만큼 심우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06년 서울시가 심우 장을 8월의 문화재로 정한 것은 이런 의미 에서 였다"며 "최근 성북문화원이 심우장 을 비롯해 그 지역 문화재 사업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 이에 불교계가 발맞추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만해 스님은 심우장 시절 참선에 주력하였고 <유마경>을 번역 하였다. 특히 만해 사상에 있어 <유마경>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장영우 동국대 교수는 '심우장의 만해문학' 발표를 통해 만해 스님이 심우장 시절 펴낸 장편소설 <흑풍>과 <박명>을 분석하 고, 소설연재가 스님의 대중전법외지의 발 보였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만해의 삶은 1879년부터 99 까지 동학입문과 북지 방방의 1기, 1900년 에서 32년까지 3·1운동 참여와 <조선불



김광식 교수



장영우 교수

교유신론'·<님의침묵>을 집필한 2기, 재 혼과 장편소설 연재를 한 심우장 시기의 3 기로 나눌 수 있다"며 "심우장 시절 비승비 속의 삶은 <조선불교유신론>등을 통해 꾸 준히 강조해 온 그의 철학의 일관된 행위" 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이어 "만해는 결혼해 심우장 에 살면서도 그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실천함으로써 결혼이 수행에 근본적 인 장애가 되지 않음을 입증했다"며 "이런 와중에서 펴낸 두 소설은 독자의 수준과 취 향을 고려한 대중전법의 방편이었다. 만약

그가 전법의지가 없었다면 시로서 얻은 위 상을 침해하는 소설연재를 선택하지 않았 을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첫 발제자로 나선 서승석 前서울대 겸임교수는 '시적 상상력과 독립운동' 발 표에서 "만해와 육당의 독립선언서"를 비 교분석했다. 서 교수는 "만해의 <조선독립 의 서>와 육당 최남선의 <기미독립선언서> 는 모두 만해의 세계관과 종교관이 반영됐 다"며 "특히 기미독립서는 육당과 만해가 작성했지만 친일파가 작성했다는 이유로 문화재조사 지정되지 않았다. <기미독립선 언서>와 함께 <조선독립의 서>가 그 소중 함에 걸맞는 예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다"고 밝혔다.

이런 세미나에서는 고재석 동국대 교 수의 '만해 한용운과 석전 박한영, 그 영혼 의 도란' △조미숙 건국대 교수의 '만해와 계초, 신문연재소설 속 말하기' △이성인 경희대 교수의 '만해와 지훈' 등 당대 지식 인 간의 교류관계를 다루는 논문이 발표됐 다.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16집 발간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최근 <선문화연구> 제16집을 펴냈다. 만해 한 용운 선사 70주기 추모특집'으로 꾸며진 이번 16집에는 6월 16일 만해추모학술회 의에서 발표된 △신규택 연세대 교수의 '〈심현담주해〉에 나타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선사상' △차차석 박사의 '만해의 대중 불교론과 그 교학적 배경' △한상길 불교 문화연구원 연구원의 '근대 동아시아 사조 와 만해의 개혁신상' △박현수 박사의 '만 해 문학의 문학사적 가치'가 실렸다.

학술상 수상논문으로는 △이상민 박사 의 '〈임능가경(入楞伽經)〉 주석서에 나타 난 초기 지론파(地論學派)의 특징'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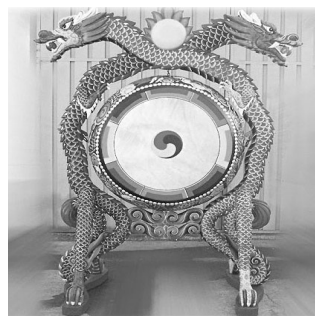
영호 박사의 '불교 시지각설(視知覺說)에 대한 인지과학적 해석' △이해민 박사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의 효순(孝順) 개념 연구'가 실렸다. 일반 논문에는 △이재량 박사의 '빨리 울에 나타나는 3종의 승단관리자' △김경 집 박사의 '구산(九山) 수연(秀蓮)의 정화 와 결사운동' 등이 실렸다.

선리연구원 측은 "16집은 만해 70주 기를 맞아 다양한 분야의 논문 16편을 실었 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학술사업에 관심 을 갖는 한편, 우리 불교학계의 발전을 위 해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마이크에서 소리를 직접 조절하는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법당전용 스피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와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세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 1대

◇특징 :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무선마이크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를 직접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